B-5. Palatal Pedicled Flap (구개부 유경판막)을 이용한 발치와보존술과 임플란트 식립 및 저작점막의 획득

남세진, 김재일, 이용무, 구 영, 류인철, 정종평, 한수부
서울대학교 치과 대학 치주과학 교실

연구 배경

상악에서 발치후 즉시 혹은 조기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거나 발치와의 수평, 수직적 폭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골이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발치와 부위의 연조직 부족으로 인한 1차치유(primary closure)가 어렵게 된다. *Nemcovsky* 등은 발치와 인접 구개점막에서 상피하 결합조직을 부분층으로 박리하여 유경판막을 형성하고 이를 회전시켜 발치와의 1차치유를 유도하는 술식을 보고한 바 있다. 이같은 방법은 임플란트 식립시 연조직의 1차치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에 골유도술(Guided Bone Regeneration)을 가능케하며 협측 저작점막증대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방법 및 재료

4명의 환자에서 구개부 유경판막술을 시행하였다. Nemcovsky 등의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 또는 그 변형법으로 시술한 후 follow-up check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술후 출혈이 없도록 확실한 봉합이 요구되며, 비교적 양호한 치유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의 증례들은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하여 구개부 유경판막술을 발치와보존술 및 저작점막 증대에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증례〉

I. 발치후 지연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발치와에 골이식술을 시행하고 구개유경판막을 이용하여 1차치유 시킨 증례

II. 발치후 흡수성차폐막 사용을 동반한 골유도술 및 임플란트 즉시식립에 구개유경 판막을 이용한 증례

III. 상악동 거상술 후, 부족한 저작점막을 증대시킨 증례

IV. 발치후 상악동의 천공으로 인해 발치와의 1차치유가 필요하였던 증례

결론

이와 같은 구개부 유경판막술은 발치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전처치 및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었으며, 적절히 응용하면 저작점막 증대에도 효과적인 술식으로 판단된다.